

2023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회의록

2023. 3.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청탁금지법 준수사항 안내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대상에 해당하여, 미술작품심의 위원들은 심의와 관련된 신청자 또는 이해당사자와 개별접촉(전화, 대면 등)의 회피 의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의 방문, 전화 등을 이용하여 청탁을 위한 접촉을 하였을 경우 이를 위원회 회의 시 공표하도록 하고, 심의에 반영토록 하고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술작품심의의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 향응,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위반행위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처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청탁성 전화 및 문자 등의 사례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의 시 이를 공표하고 심의에 반영함

[관계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2023년 제3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2023. 3. 16.(목), 14:30~16:15
- ◆ 장 소: HJBC 세미나룸A
- ◆ 참 석: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일반안건 6건 13작품 (조각 13)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3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안건별 사전검토 의견서 보고 후 위원님별로 평가표에 따라 가/부/조건부승인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작품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종합,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일 경우 승인 결정을 하고, 미승인 작품의 경우 공개토론 후 위원별 가/부/조건부승인을 재결정 한 후 최종 승인 결정을 합니다. 1번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안건>

1. 기억하다-Reminiscence

<긍정적 의견>

- 작은 작품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심의 작품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임
- 주변 외부공간 및 수경시설과의 연결성을 조화롭게 연결함
- 아이들의 동심이 반영된 내용과 주거 공간 간의 특성이 비교적 잘 부합하는 작품임
-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동심과 행복을 선사함
- 작가의 작품 요소가 가미됨
- 지난 심의의 지적 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임
-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를 추가하여 따뜻한 느낌을 더함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우며 공간에 활력을 주는 작품으로 판단됨
- 작가의 기존 작업과 공공미술 작품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작품임
- 심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보완하였으며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에 조화로운 작품

- 기존 작품 구성보다 풍성한 구성력
- 부결 사유를 보완하려 했으며, 전작에 비하여 공간을 활용하여 다방면의 감상이 가능해졌음
- 오브제들의 추가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함
-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를 잘 보완하여 다채로운 형상들로 구성하고,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작품
- 전작대비 형태적 안정감을 주어 주변공간과 조화가 무난함
- 작가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남
- 기존보다 나아진 구성과 서사
- 지난 심의 의견을 보완하여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를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작품 규모 확대와 안전성을 보완하였음

<부정적 의견>

- 공간과 잘 어울리지 않아 보임
- 강렬한 컬러 배색으로 인해 시각적인 피로감이 느껴짐
- 유지 보수 우려됨
- 예술성의 측면에서 아쉬움
- 주요 모티브로 제시된 은행나무의 표현이 미비한 형태
- 견적에 비해 작품 규모가 왜소함
- 4개의 방향에서 작품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벽에 붙은 작품도 아닌데 두 방향에서만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작품들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게 느껴짐
-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고 조형성에서도 부족하게 느껴짐
- 외부 벽면이 아닌 공간에 설치하였을 때 평면성이 부각되고, 측면에서 감상시 왜소한 형태라고 보임
- 작품의 유닛이 늘어나 공간 활용은 되어 보이거나 여전히 한 방향의 정면성이 강하고, 다소 진부한 형식에 기시감이 강한 작품
- 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주제성, 상징성은 이해되나, 주변 경관과 다소 무리가 되어 부조화 느낌임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여전히 환경과의 조화, 부피감이 아쉬움

2. 피어나는 빛

<긍정적 의견>

- 기존 작보다 개선되어짐
- 설치 공간에 활력을 주는 작품으로 야경효과가 기대됨
- 작가의 작품 소재인 전구를 이용한 시리즈 작품으로 무난해 보임
- 장식성을 탈피한 것으로 보이며 장소에 적절해 보임
- 전작에 비해 충분히 개선된 연출을 보여줌
- 작품의 높이가 높아서 보행공간에 문제는 없을듯함
- 잔디 위에 자연스럽게 피어난 식물같은 모습은 기학적 건축공간과 잘 어우러짐
- 주제와 메시지가 보다 잘 표현되었으며, 자연친화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음
- 관람 각도에 따라 작품이 주는 인상을 변화시켜 조형적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 의견을 많이 반영시킨 작품인 듯 합니다.
- 작가의 포트폴리오에 등장하는 전구 모티브로 구성되어서 훨씬 더 작가의 작품성에 가까운 듯 합니다.
- 아치 문주의 형태로 건축물 전면부의 개방감과 전구로 은유된 자연물의 형태가 흥미로우며 조형미가 돋보임
- 건축물 외부와 부합되는 작품으로 무리없이 어우러짐
- 작가가 해온 작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전 작품보다 잘 개선된 작품
- 이전보다 개선됨
- 소재, 색채, 공간 점유 위치에 따른 상점과의 조화가 무난함
- 작가의 기존 작품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조성하며 독창적인 공간으로 구현한 흥미로운 작품
- 지난 심의 의견을 보완하여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를 개방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작품 규모 확대와 안전성을 보완하였음

<부정적 의견>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관성이 떨어짐
- 기존 심의 작품의 뾰족한 형태는 보완이 되었으나 꽃의 형태가 너무 단조로워졌고, 작게 달려 있는 봉우리들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짐
- 기존의 심의작품보다 개별화된 세련미가 무난하지만 작가의 작품성 반영과 건물의 조화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음
- 작품 의미를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은 투조 형태
- 작가의 포트폴리오에서 보여주듯이 작가의 작품간 일관성이 없어 작품성을 찾기 어려움

- 사진의 오른쪽 부분(전구)는 지나가는 사람, 또는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 안전이 우려되는 바임
- 부결된 작품과 유사한 형식이 유지되고 있고, 전구로 변경된 작품의 주제가 다소 진부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함
- 기동과 전구 형태에 따른 대칭/부피감-조화가 아쉬움

3. 동심으로 보는 하늘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보다 개선됨
- 전작보다 개선되어짐
- 전작에 비해 안정된 구성을 보여줌
- 주민들의 의견에 맞는, 동심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무지개, 구름 등의 표현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상상력을 발현 가능케 할 수 있는 작품임
- 조형적으로는 보편적이거나 너무 깊지 않은 의미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새처럼 비행하는 사람의 단순한 형상성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야경효과가 긍정적인임

<부정적 의견>

- 무지개, 구름 등 다소 평이한 소재와 평범한 조각품의 흔한 모습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며, 개인적 소견으로 작품성 대비 작품가가 비교적 고가로 책정되어 있음
- 작품의 조형성과 작품의 주제 간의 연결성이 부족해 보임
- 설치될 공간과 이질감이 느껴짐
- 장식적이며 다소 진부해 보임. 개체 간의 유기적 관계성이 아쉬움
- 인상적이지 않게 의미 부여된 형태
- 유연성이 부족하고, 주제 의식이 다소 부족해 보임
- 형태에서 오는 진부함이 있으며, 변형된 구상적 요소가 다소 애매함
- 주변 공간과 다소 부조화함
- 기시감이 높아 독창적이지 못하고, 현재적이지 않고 세련미가 떨어지는 작품임
- 바닥에 놓인 형상이 산만하며 공간에 조화롭지 못한 조형으로 진부함
- 정면성만이 강조되어 열린 공간에서 관람자의 감상에 적합지 않음
- 진부한 조형언어
- 정면만을 고려한 조형성
- 기념비적 성향의 작품으로 보여 장소적 이질감이 들고, 미적으로 교감하기 어려움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형태 구성의 단조로움과 스텐인리스 재질과 스테인드 글라스 구성이 조화롭지 못함
- 작가의 기존 작품과 연계성은 있으나, 단순한 조형물에서 오는 주변 경관과 조화가 애매함
- 독창적인 조형성보다 장식성에 치우친 진부한 조형

4-1. Love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의 위험적 요소를 없애려 노력하였고, 주변 공간과 잘 어울리므로 긍정적으로 보임
- 파이프 관을 활용한 하트의 조합형식이 비교적 무난한 작품으로 판단됨. 단, 색채가 있는 파이프관의 변색, 먼지 축적 등 청소 관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작품이 가지는 상징성이 설치 공간에 잘 어울림
- 밝고 경쾌한 색상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긍정적 의미와 대중적인 형태
- 안전성의 문제해결 및 디자인 보완으로 전보다 안정적인 조형물로 생각되고, 주변환경 과도 조화롭다.
- 쉬운 도상의 변화와 색의 변화는 주거단지 공공작품으로 긍정적으로 고려됨
- 이전보다 개선됨
- 친근한 소재의 집적된 구성과 색채의 조화

<부정적 의견>

- 식상한 조형미와 작품가 과다
- 1차적 표현으로 예술성, 독창성 결여
- 다소 평면적이며 장식적 표현으로 조형적 흥미로움이 떨어짐
- 작품의 구성이 어색함
- 작품의 의미가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됨
- 조형적인 면에서도 부족하게 느껴짐
- 오목하고 볼록한 면이 쉽게 오염이 될 것 같고, 컬러 또한 생동감이 없어 보임
- 강요된 이미지로 보는 이로부터 감정 전달이 잘되지 않음
- 주제 의식이 모호함
- 예술성 부족
- 작가의 독창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많은 형태의 조형물로 보여짐

- 작품이 작은 구멍으로 이루어져 안전과 작품 유지관리 부분이 우려됨
- 하트 형상이 직접적이며 과한 색감과 형상이 공간과 조화롭지 못함
- 사랑에 대한 해석이 단조롭고 견적이 과다하게 책정됨
- 좌대 부분 역시 파이프를 이용할 경우 접촉을 막기보다는 더 접촉이 많이 일어나고, 접촉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다른 재질의 좌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고려됨
- 동일형태의 반복으로 답답하고 1차원적인 조형성
- 작가의 고유 기법과 표현된 형태의 연결성이 모호함
- 형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될 파이프 내부의 먼지 침전과 오염으로 작품 미관 유지가 염려됨
- 파이프 구성의 대부분의 작품이 시뮬레이션과 다소 차이가 있음
- 기 심의 사항을 반영한 친근한 형태의 적용은 무난하나, 사용 재질에서 오는 청소 및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 예상됨
- 파이프 내 먼지나 오염으로 인한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4-2. 시간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의 수직적인 형태 구조를 쪼개어 나열함으로써 단조로움을 보완하였고 설치될 공간과도 잘 어울림
- 작가의 세계가 잘 나타난 작품
- 작가의 예술성과 개성이 잘 반영되었으며, 화강석을 활용한 조각의 무게감과 시간에 대한 주제 내용이 잘 융합된 작품으로 판단됨
- 다각도에서 감상이 가능한 작품으로 주변과 무난하게 어울리는 조형성
- 상징적 표현이 돋보임
- 높이를 조절하여 시각적으로 편안해 보임
- 작가의 독창적인 표현법이 인상적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무난한 작품임
- 작가의 아이덴티티가 잘 표현된 작품으로 공간에 안정적으로 배치하여 개선됨
- 부결 사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화를 주어 개선하려 하였음
- 이전 부결 사유들을 무난하게 수정 보완한 작품
- 독창적인 조형성을 분리한 모듈의 형태가 기 심의 사항인 수직적 긴장감에서 오는 불안감 해소 및 설치 공간과 조화 및 안정감이 있음
- 정적인 잔디 공간에 안정적으로 작품을 배치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긴장감 해소함

<부정적 의견>

- 미술작품이 주변 외부공간과 조화롭지 못하며, 작품 높이로 인해 위압감이 느껴짐
- 답답한 구성
- 건축물도 차갑게 느껴지는데 조형물조차 차갑고 무겁게 느껴져서 공간과 부조화가 느껴지며, 공간에 어떤 의미나 느낌을 주지 못할 것 같음. 그 장소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음
- 단순화된 형태가 오히려 투박해 보여 조형물로서의 환기성보다 중압감을 느끼게 함
- 전작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보다는 작품의 배치만이 보임
- 속을 비우지 않은 통석재를 높게 쌓아 올리는 경우 인공지반의 단위면적당 하중을 고려하고, 작품을 지지하는 슬라브의 보와 같은 구조 위치를 고려하여 기초를 타설하고 작품을 설치할 것을 고려
- 여전히 환경과의 조화가 무거워 보임

4-3. Time of Skin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의 수직성을 보완한 작품으로 설치공간과 적절히 어울려 적당해 보임
- 무난한 작품
- 타원형의 기하학적 모던함과 플라즈마 기법의 거친 재질감이 잘 조화된 작품으로 긍정적임
- 개방감 있는 형태로 입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임
- 모던한 형태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 경관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림
-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무난한 작품임
- 주변 공간과 무난하게 조화로움 원형성의 조화가 무난함

<부정적 의견>

- 조형성, 독창성 부족
- 작품 주제 공감하기 어려움
- 형태적 새로움이 아쉬움, 한 단지에 제시된 작품들 대다수가 독립적 오브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기획이 아쉬움
-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에 비해 단순화된 철의 생명력이 아쉬움
- 플라즈마 기법을 사용하는 노력을 하여 물질적 회복을 추구한 작품이라고 하나 작품 자체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물질회복이 그 장소와 그곳의 사람과 작품과의 연결성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짐. 전체 조형성에서도 너무 단순하게 표현되었다고 판단됨

- 작품 아래 기단과 작품의 부조화로 부담스러운 조형
- 진부한 디자인의 조형이 다소 아쉽다.
-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적 의미 또는 조형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인 조각 형상이며 구조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게 함
- 조각과 좌대의 접합 부분 면적이 다소 좁아 보임
- 측면에서 봤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좁아지는 각도를 더욱 완만하게 하여 좌대와 접촉하는 면적을 넓혀,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작가의 독창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유사성이 많은 형태의 조형성
- 교체된 작품도 설치장소 및 하부의 좌대와의 이질감이 등
- 작가의 전작들에 비하여 뜬금없는 형태에 표현기법 일부분만 형식적으로 담은 식상한 작품으로 보임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원형 내부의 플라즈마 기법과 외부의 우레탄 채색이 된 표면-물성의 조화가 아쉬움
- 흔하고 진부한 조형성

4-4. Forma-계획된 우연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의 수직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작품의 볼륨감을 살짝 키워 보완한 듯 보이며 세련된 느낌이 있음
- 단순한 형태 안에 불규칙한 조형미가 더해진 흥미로운 작품
- 작가의 독특한 개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주민들에게 시각적인 관심도를 줄 것으로 보임
- 작가만의 디테일한 감성을 보여주는 작품
-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작품연구가 긍정적 구성력이 치밀하여 조형물로서의 안정감이 뛰어남
- 규모가 적합하여 적당한 아우라를 띄고 있음
- 기하학적인 조형의 반복이 흥미로우며 작품이 개선됨
- 부결 사유들을 보완하였음
- 반복되는 큐브가 결합된 조형물의 단조로움이 주변 경관과 조화가 무난함
- 이전보다 개선됨
- 간결해진 기하학적 구성의 조화
- 심의 의견에 따라 작품 재질 변경하고, 작품 사이즈를 확대하여 개선됨

<부정적 의견>

- 외부공간 규모에 비해 다소 작품 모듈이 작음
- 작가의 예술성이 반영된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형태가 건물(아파트)의 모양새와 유사하여 다소 지루한 느낌을 자아낼 수 있음
- 유지관리가 우려됨
- 직립 큐브의 고층 아파트 사이에서 유사한 형태로 존재감을 얻기 어려운 형태로 보임
- 한 단지에 제시된 작품들 대다수가 독립적 오브제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기획이 아쉬움
- 작품 자체만으로는 기하학적 형태로 각각 하나의 블록을 만들어 구조적 미감을 추구하였으나 아파트의 형태와 유사한 직사각형의 형태는 건축과 동일한 형태로 서로 어우러지지 않으며 재료 또한 아파트 형태와 유사한 차가운 느낌을 주고 있음. 조형물이 공간과 건축과 그곳의 사람과 자연과 어울리고 서로 조화가 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 경직된 형태로 공간과의 조화가 우려되는 작품
- 전체적으로 둔탁한 형태의 조형성을 보임
- 아파트 단지 내 조밀하게 응집된 수직적 구조 형식으로 가시성 및 조형성의 부족
- 작품의 내부와 외부의 구조가 만드는 공간은 흥미로우나 완성된 작품에서 그것을 알아보기 어렵고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를 좀 더 고려할 필요가 보임
- 식상한 형태와 기법으로 독창성이 부족함
- 아파트의 수직적 형태와 겹침
- 설치 공간을 고려하지 못한 이질적인 구성으로 부조화스러워 보임
- 우뚝 솟은 아파트와 간결하게 솟은 포천석 구조의 조화로움 뒤에 남는 아쉬운 여운

4-5. Revive Star(부활의 별)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의 부정적 의견이 잘 반영이 되었으며 야경을 고려한 작품이 인상적으로 보임
- 야간에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한 작품임
-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관객이 지나갈 수 있는 동선을 구성하여 시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 각진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규모를 지닌 유기적 형태가 조화를 이룸
- 단순한 구성을 통한 세련된 연출
- 조명의 효과를 잘 활용하였으며, 현대 조각의 단면을 잘 보여줌

- 규모의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의 조화가 인상적임
- 조형물의 색조가 주변 경관과 조화로움
- 유려한 곡선으로 야외 공간에서 미감이 우수하며 반으로 구부러진 형태에서 음양의 공간감을 부여하고 야간 조명이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보이는 효과가 우수한 작품으로 판단됨
- 부결 사유를 보완한 새로운 작품으로 관람객이 걸어 들어가고 쉴 수 있는 일종의 파빌리온 조각은 긍정적임
- 규모나 형태가 흥미롭고 예술작품으로 주변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 보임
- 환경과 어울리는 추상적 형태의 긍정성

<부정적 의견>

- 작품가가 과다해 보임
- 전반적으로 형식과 조명의 활용이 다소 평범해 보이는 아쉬움이 있음
- 작품 내용에 비해 부담스럽게 커진 형태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의 유기적 형태를 표현한 본 작품은 의도는 좋으나 곡면의 형태 표현이 더불어라는 느낌보다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음
- 조형성에서 부족하게 느껴짐
- 경직된 형태로 공간과의 조화가 우려되는 작품
- 다소 전체적으로 둔탁한 형태의 조형성
- 작품의 주제와 형상이 이질적임
- 정체성이 모호한 작가의 작품적 표현인 듯 하다.
- 가액에 맞추어 큰 스케일의 작업으로 발전시켰으나 지나치게 단순화한 형태가 감상의 흥미가 약하거나, 열린 공간에서 측면 모습이 다소 답답한 인상으로 느껴질 수 있음
- 식상한 형태와 기법으로 독창성이 부족함
- 조명연출(별)의 위치와 면적 구성이 조잡함
- 조형물의 내측면에 설치된 조명에서 오는 구성이 긍정적이고 흥미로우나, 조형물의 심플함이 주간시에는 주변공간과 조화는 애매함
- 익숙한 형상으로 평이한 조형

4-6. 사유의 공간

<긍정적 의견>

- 기존 심의 작품을 보완하여 형태의 안정감이 두드러지며 색의 조화로움이 긍정적으로 보임

- 간결한 리듬감과 울동감이 느껴지며 공간에 무난한 조형성
- 긍정적인 색채 배색으로 인해 공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작품
- 조형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작품의 손 형태를 화합, 조합, 평화의 의미로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돋보임 컬러의 의미와 배합도 잘 어우러짐
- 건축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채로운 색감의 사용이 주변 공간에 활기를 불어넣어 줌
-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임
- 개성 있는 색상의 조화와 유기적인 형상이 흥미로움
- 전보다 도시적이고 색채로서의 의미 구성도 세련된 구성력이 돋보인다.
- 부결 사유들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이전보다 개선됨
-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견고한 재료로 교체하였으며 형태가 주는 새로움이 있음

<부정적 의견>

- 과한 형태가 부담스러워 보이는 작품
- 색채의 대입은 다르지만 파주 운정 아이파크의 공공작품과 외형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다소 작품의 반복 재생산적인 측면이 있음.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또는 개별화된 작품성이 필요함
- 작품 주제 표현이 다소 진부하게 느껴짐
- 다소 작위적인 의미 부여와 상징성
- 애매하고 어색한 구성
- 작가의 표현법과 구상 형태와의 연결성이 모호함
- 견적을 고려하여 작품의 크기가 작으며 색상의 조합이 잘 어울리지 않음
- 작가의 고유한 조형 언어에서 나온 형태는 좋으나 색의 배합에 있어 주변과 조화를 좀 더 고려하면 좋을 것으로 고려됨
-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운 색감과 형태
- 공간의 규모에 비하여 작품의 형태가 왜소하고 작품가격도 다소 과도해 보임
- 모호한 형태 구성과 색채의 공간 연출
- 조형적인 심미성과 공간의 장소적인 성격과 조응할지 애매함

5-1. 관찰-9개의 달

<긍정적 의견>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설치공간에 조화를 이룸
- 단순한 형태이지만 조형미가 돋보이는 작품
- 작가의 독특한 작품세계가 반영된 작품으로 예술성이 돋보임
- 무난한 형태
- 감각적인 색 배치가 돋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사유를 끄는 작품임
-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무난한 작품임
- 작가의 의미적 구성이 잘 표현된 듯 하다.
- 달의 형태를 조형적으로 잘 표현함

<부정적 의견>

- 컬러 배색을 조금 더 유연성 있게 검토 요함
- 작가의 작품성과의 연결점이 미흡하고 주제와 형식의 조화적 측면에서 다소 평이한 듯한 아쉬움이 있으며, 개인적으로 전반적인 색채의 배치에서도 공감하기 어려움
- 주거공간인 아파트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장소에 어울린다고 판단되어짐
-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한 형태임
- 경험을 유발하는 긴장감과 심미성이 아쉬움
- 건축공간에 달을 모티브로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됨. 또한 크고 작은 같은 형태의 너무 많이 겹쳐지는 작품의 형태가 조형적으로 복잡하게 느껴짐
- 공간과 조화롭지 못하고 안정감이 부족함
- 자칫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하부의 구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각도에서 새로운 인상이라기 보다는 강한 좌우대칭 형태가 더욱 들어오고, 다소 차가운 색감의 조합이 주변과 조화가 어렵게 느껴짐
- 작품의 재료나 공정에 비하여 작품가액 과다
- 이전 부결 작품보다 보완되어 보이지 않음
- 여전히 경직되고 대칭적 형태로 특별함이 없어 보임
- 의미에 비해 조형적으로 다소 식상함
- 기존 작품보다 나아지지 않은 불안정한 형태의 단조로운 구성
- 모티브에 대한 다양한 각도와 반사를 활용한 단순한 겹침의 조형미는 주변 공간과 무난하나, 겹치는 틈새로 인한 유지 관리 측면이 우려됨
- 단조롭고 감흥이 없는 조형성

5-2. Resilience-서정적 풍경(미루나무)

<긍정적 의견>

- 주변 녹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잘 표현되어있으며, 작품 규모가 적당해 보임
- 주변 외부공간과 조화롭게 도입됨
- 조경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작품
- 나무소재의 조형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대중친화적인 작품
- 작가의 고유 언어와 작품성이 잘 드러나며 작가만의 해석과 표현이 더해진 작품임
- 주변 장소와 무난함
- 자연과 공존하는 주제 및 조형을 가진 작품으로, 긍정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회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조형물로서 훌륭함
-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반영된 작품으로 서정적인 풍경과 휴식의 에너지를 선사하며 공공미술 작품으로 긍정적임
- 주변과의 조화 및 조형적 표현이 세련됐다.
- 한쪽으로 기울어진 나무 투조 형태가 바람이 부는 것처럼 느껴지며 제목의 서정적 풍경이 연상됨
- 인공 도시와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음
- 부결된 작품에 비하여 자연의 이미지가 들어간 작품이 친근하게 보임
- 환경과의 조화가 긍정적임
- 휴식과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며 예술성이 돋보이는 작품

<부정적 의견>

- 가성비 측면에서는 긍정하지만, 작품의 외형과 내면의 나무 도판이 부조화스럽고, 개인적 소견으로 외형과 어울릴 수 있는 적정 도판 또는 다른 외형의 모색이 요구됨
- 유사한 작품이 있어 새로워 보이지 않음
- 작은 작품 정면 좌측 열린 구조의 안전성 및 작품 내부 관람으로 작품성 저해가 우려됨
- 아파트 단지에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너무 많은데 굳이 나무의 형태의 조형물을 한다는 것은 공간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작가가 주장하는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휴식이 될 수 있는 작품은 나무가 아닌 다른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됨

- 조형성에서도 부족하게 느껴짐
- 작가의 기존 작업과 연결성은 있으나 단조로운 형태로 예술적 감동이 결여되어 보임
- 레이저 커팅 작업으로 마감된 부분에 생긴 구멍이나 모난 절단면이 관객이 손으로 접촉 가능한 높이이므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감이 필요함
- 유사한 기법의 조형물이 많아 다소 식상함
- 투각된 형태가 복잡하고 시각적으로 날카롭고 산만해 보임
- 모티브에 대한 조형성은 이해되나, 단순한 구성의 연출이 해당공간과 조화가 애매함
- 공공장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품임
- 크기만 달라진 단조로운 형태의 동일한 구성

6-1. RENEW-문명과 자연

<긍정적 의견>

- 직선적인 요소가 강한 건물과 잘 어우러지는 작품임
-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되는 작품으로 표면 마띠에르가 다른 기동들과 그와 어우러지는 빛의 연출이 조화로운 작품
- 기하학적 건물 기동과 예술적 조각 기동의 대비와 조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임
- 작품의 구성, 비례감, 형태가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짐
- 작가의 기존 작품세계와 일관성이 있음
- 장소성 분석이 설득력이 있으며, 벤치와 연결된 작품으로 장소에 부담을 주지 않음
- 전면창 로비 공간에 적절하게 어울림
- 석재 활용이 긍정적
- 전체적 구성과 재료(석재)의 특성이 잘 어우러짐
- 작품의 소재 및 조형에서 오는 적당한 무게감이 인상적임
-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림
- 공간과의 조화가 좋으며 건축공간과 잘 어울림
- 개성 있는 작품으로 무난함
- 기존 작가의 정체성이 잘 반영된 작품
- 사각 형태의 기동으로 건축물의 기동에서 확장된 것과 같으며, 내부의 갈라진 틈으로 보이는 빛은 야간 감상과 조도에 따른 공간감을 줄 수 있음
- 설치공간과 조화로우
- 빛과 원초적인 석재로 구성된 조각작품이 현대적인 건축공간과 잘 어울려 보임
- 조형 작품의 심플함에서 오는 강인함이 건축물과 조화로우
- 작가의 작품세계가 잘 드러남

- 화강석의 물성과 투각된 이미지는 긍정적인

<부정적 의견>

- 작품의 모듈이 수경공간과 조화롭지 못함
- 공개공지의 개방적 경관 연결성 필요
- 세 개의 매스의 높이가 유사하고 모여있어 단조로워 보임
- 건축물과 비슷해 보이는 직육면체와 같은 컬러, 차가운 느낌의 작품은 왜 이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됨.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문명과 문명의 연결처럼 느껴짐. 건축을 유희시키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됨
- 수직, 수평의 디자인 요소가 두드러진 건축물 앞에 유사한 수직성이 강한 작품이 있어 작품이 다소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움. 후면의 건축물 기둥과 유사한 인상
- 작품 내부의 조명에 대한 점검 및 교체 계획이 부재함
- 답답한 형태의 답답한 구성, 건축물과 이질적임
- 작가의 개성있는 작품성은 인정되지만, 설치공간과 조화롭지 못함

6-2. Memory of the Sea

<긍정적 의견>

- 작품은 감각적이며 구상적인 조형요소들이 공간에 조화롭게 잘 어울림
- 작가의 조형적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으로 제목과 작가의 의도인 초현실적인 느낌이 잘 표현된 작품
- 전면창 로비공간에 적절하게 어울림
- 개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도심 건물에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
- 디테일이 살아있어 야간조명 효과가 기대됨
- 몽환적 공간이동의 연출력이 긍정적임
- 작품의 성세함과 규모가 적절하게 배치되었으며, 주제의식이 미감에 잘 반영되어 우수함
- 자연 친화적이면서도 초현실적인 감각이 보는 이로 하여금 친밀감을 불러일으킴
- 실내 공간에 부담스럽지 않고 잘 어우러짐
- 재미있는 구성의 감각적인 조형물이 실내공간과 조화로움 및 시각적인 관심도를 줄 것으로 보임

<부정적 의견>

- 작품이 너무 사실적이라서 세련된 느낌이 없으며, 작품 속에 있는 작품이 오염이 될 경우를 생각하게 됨
- 실내 공간에 있는 바다 풍경 모습이, 사람들에게 초현실적인 풍경의 제공으로 어떤 상상을 하길 원하는 것인지
- 해저를 표현한 조명효과는 긍정적이지만, 고래, 소라 등의 구체적인 묘사에서 작가만의 특화된 예술성 반영의 아쉬움이 있음
- 작품이 너무 일차원적임
- 바닥에 흩어져 있는 구조물이 보행에 방해가 됨
- 바다에서 떠오르는 대상을 표현한 작품이나 조형적으로 단순함
- 지나치게 가벼운 느낌
- 유지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건물 로비에 설치된 과도한 바다 풍경, 이질적인 입체풍경
- 작가가 기존의 나무풍경과 바다 풍경의 형태에 습관적으로 개입시키는 원형/링의 빈약한 조화
- 알루미늄 주물 고래 형상이 6mm환봉 링에 고정되는 부분의 안정성과 구조검토가 요구됨
- 다소 설명적임
- 작품의 망부분이 안전성에서 우려됨
- 업무단지에 어울리지 않는 작품으로 수족관에 어울리는 작품임
- 단순히 바다생물들의 형태들을 장식적으로 조합한 듯 하여, 장소성과 예술적 공감이 느껴지지 않음
- 작품 내부의 조명에 대한 점검 및 교체 계획이 부재함

<기타 의견>

조명 점검구 없음

<심의결과 집계 및 결과발표>

위원장 : 오늘 일반안건 13개 작품 중 1, 2, 4-2, 4-5, 4-6, 5-2, 6-1번 작품이 승인, 3, 4-1, 4-3, 4-4, 5-1, 6-2번 작품은 부결됐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23년 제3차 미술 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승인된 작품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